

제목: "성도의 준비 된 하루"

말씀: 사도행전 14장 8-18절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바울과 그의 전도 팀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나의 하루를 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하루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 1) _____만 받고 다녔습니다.
- 2)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모두 _____.
- 3) _____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 양 다 갈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14장 8-18절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Acts 14: 8-18 신약 211 페이지 President
- 말 씬 "성도의 준비 된 하루"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life of believers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 갈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갈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뽕 뚫린 하늘)

얼마 전 북가주와 오레곤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다.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기간 중에 거리는 멀었지만 내가 사는 곳에도 일주일의 넘게 나쁜 공기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해서 일기 예보를 보면서 곧 공기가 좋아지려나?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더 나빠지고 있는 공기 상태를 보면서 답답함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루 종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졌기 때문이다.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공기가 좋은 곳에 가려고 찾아보니 아이다호주와 유타 주까지 공기 상태가 최악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8일 만에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비가 왔기 때문이고 비와 함께 바람이 반대로 불어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좋아진 공기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그 동안 단풍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었다. 소망은 있구나!

파란 하늘을 보고 해와 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저 쪽에 있는 높은 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마음껏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여기며 살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얼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다. 먹지 못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쁜 공기가 걸릴 때에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25절)라고 하나님을 말한다. 과연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믿으며 혹시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결코 답답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답답하게 생각하던 그 구름 위에 계시고 그 연기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연기 아래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두움은 곧 걸릴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아니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그 때가 되면 흐렸던 것들이 걷히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답답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 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교육부 사역의 시작되도록
- 6)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김예식: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임영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 7)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섬기는 프랑스 교회의 부흥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 개척과 섬기는 목회자들의 안전
깊은 부리교회: 교회가 굳건히 부흥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실에서 늘 친교가 있습니다.

4. 주일예배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5)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6)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7)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8) 하지만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합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